



지부티의 전력사업 현황

1. 개요

- 국토 면적 : 2만 2천km²
- 인구 : 61만 9천명
- 수도 : 지부티
- 언어 : 아랍어, 프랑스어
- 통화 : 지부티 프랑
- 환율 : 177.72
- 국민총생산(GNP) : 4억 4800만 달러
- 주파수 : 50Hz
- 전압 : 220V
- 1인당 전력사용량 : 300kWh

2. 일반 사항

홍해가 아덴만과 합쳐지는 곳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바로 남쪽의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지부티는 동북부 아프리카의 작은 공화국으로서 전에는 프랑스령 아파르족과 이사족 준주(準州)로 알려져 있었다. 이 나라의 인접국가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몇몇 국가가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모두 현재 또는 최근에 내전 또는 역내 전쟁에 휘말렸었다. 북쪽으로는 에리트레아, 남쪽과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소말리아와 인접하고 있다. 지부티의 국토는 초승달 모양으로

타주라만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이 만(灣)의 남쪽 해안에 이 나라의 수도가 위치하고 있다. 타주라 만의 북쪽은 산이 많아 거의 2,000m까지 치솟아 있으며, 그 외에는 덩고 건조한 전형적인 사막기후로서 불모의 고원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지부티의 자연자원을 보면 몇몇 광물 매장량이 있을 뿐이며 이들 광상(鑛床)은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농촌지역 인구의 대부분은 작은 오아시스 구역내의 유목민 또는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12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지부티는 1977년에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하산 구르드 아프티돈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선거에 의해서 교체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그의 오랜 보좌관에 의해서 승계되었다). 대통령의 최근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는 아파르족의 반도들과의 3년간에 걸친 내전을 1995년에 평화적으로 종식시킨 것이다. 같은 해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제의한 구조조정에 합의하였다. 이 구조 조정의 첫 단계는 정부 인력을 감축하고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정부의 예산 결손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부 인력의 절반이 군인과 경찰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다른 복잡한 문제는 경화의 중요한 공급원인 9,000명의 프랑스 군인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한도 과거의 국가통제주의의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고 에너지를 포함하는 주요 산업부문 몇 개에 대한 민영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지부





티의 주요 경제 사업체는 이 나라 수도의 항만설비로서 이 항만설비는 에티오피아와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간헐적으로 6천만 인구를 가진 에티오피아의 주 항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초에 정부는 새로운 터미널과 장비를 갖추어 항구의 하역능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존 자유무역지대에 추가해서 자유항이 계획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자유지역도 계획중이다.

3. 전력사업 개요

지부티 전력공사(EDD)는 전력의 생산과 배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소유의 전력사업체이며, 산업·에너지 및 광업성의 통제를 받는다. 이 나라의 다른 중요한 에너지 사업체는 탄화수소 공사(EPH)로서 석유 생산품을 분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나라에 설치된 발전설비 용량은 약 8만 5천kW이며, 수도 인근의 부라오스에 있는 디젤발전소는 EDD의 전력생산량의 95%를 공급하고 있다. 다른 전력회사와 자가용 발전소

도 몇 개소 있다. 전력생산에 소비되는 연료는 90%가 증유이고 10%가 가스오일이다.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1억 8500만kWh이다.

1981년 이후 지부티의 전력소비는 연간 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전체 전력소비의 약 97%는 이 나라의 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나라의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은 전적으로 바이오매스와 기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EDD는 제도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나 여러 해 동안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발전 플랜트에 대하여는 양호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프랑스 개발기금(CFD)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EDD는 부라오스에 1만 1500kW의 새로운 엔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부라오스에 마지막 두 개의 큰 기계를 공급한 바 있는 이탈리아의 한 기기제조 업체는 1994년에 1만 5천kW 3대분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기를 공급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제의에 대한 현재 상황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

4. 장래의 전망

적정한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전력부문에 있어서 지부티의 가장 큰 문제는 발전소용 연료를 수입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이 나라는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제한되고 분산된 수요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량 전력공급에 대한 보다 더 중요한 전망은 지열발전으로서 프랑스와 일본의 재정지원을 받아 EDD와 국립지열연구센터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아살 호에는 섭씨 350도의 유체를 분출하는 우물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인근에 5천kW의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레-가가가데와 아브헤의 다른 지열자원도 또한 기대할 만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자료 : udi 'Country of the Week, 1999.5.3)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전력사업 현황

1. 개요

국토 면적 : 62만 2980km²

인구 : 334만 4천명

수도 : 방기

언어 : 프랑스어 통화 : CFA프랑

환율(미 달러대) : 524



국민총생산(GNP) : 10억 2400만 달러
 주파수 : 50Hz
 전압 : 220V
 1인당 전력소비량 : 31kWh

2. 일반 사항

가. 육지에 둘러싸인 내륙(內陸) 공화국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CAR)은 북부 아프리카의 중앙에서 육지에 둘러싸인 국가로서, 북쪽으로 차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수단, 남쪽으로 콩고 그리고 서쪽으로 카메룬과 이웃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은 언덕과 콩고 강 유역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해발 1,400m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고원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부의 건조하고 광활하게 트인 초지로부터 이 나라의 중앙

부의 대초원을 지나서 남서쪽의 광대한 열대 우림으로 이어지는 열대성 생태계의 다양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CAR에는 세 개의 큰 강이 있는데 북쪽의 바빙기와 우암강 그리고 남쪽의 우망기 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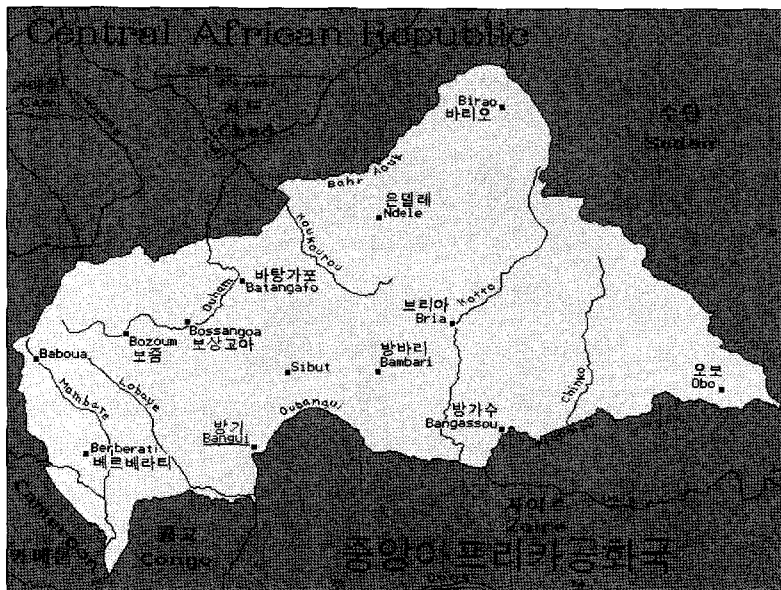
1976년부터 1979년까지 CAR는 중앙 아프리카 제국(帝國)으로 알려져 있었다. 제국 수립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은 특이한 것이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CAR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다. 그러나 자체적인 입법기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프랑스 의회에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나라는 1960년에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지만 1966년에 그 당시의 대통령의 4촌으로 육군 최고사령관이었던 장 베델 보카사 대령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권력을 장악하여 권위주의적 정권을 수립하였다. 1976년 늦게 새 헌법은 국가를 중앙 아프리카 제국으로 재출범시켰으며 보카

사는 1977년 12월에 호화판 대관식을 거행하여 보카사 1세 황제가 되었다. 이 제국은 황제가 국민들을 대학살하는 등 권력남용을 일삼던 끝에 프랑스가 지원하는 쿠데타로 축출됨으로써 1979년 9월 막을 내렸다. 이때 보카사가 남겨놓은 것은 몇 개소의 매우 큰 궁전과 기타 기념 건조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개발 상태의 농경경제 뿐이었다.

나. 바다 항구까지의 먼 노정(路程)

CAR 인구의 대부분은 아직 식생활 수단으로서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역사로 인해 상업과 산업 발전이 늦어지고 다양한 금속 광업자원은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내버려져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채광되어 커피, 목재 그리고 목화와 함께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CAR는 부분적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 항구인 콩고의 푸앵트 누아르로의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다. 현재 바다 항구로 물자를 이송시키기 위해서는 우망기 강에서 콩고 강으로 그리고 브라자빌로 물자를 내려보내어 브라자빌에서 화물을 취합하고 이 짐을 다시 철도를 이용하여 푸앵트누아르의 항구설비로 운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CAR의 에너지 정책은 광업·에너지성에 의해서 수립되며, 재정적인 문제는 주로 대통령실에서 통제된다. 천연자원





담당기관은 수자원, 삼림 및 관광성이다. 중앙 아프리카 석유공사(PETROCA)는 지분의 75%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석유생산품의 수입과 판매를 독점 관리한다. CAR는 60만kW의 포장수력, 최근에 발전한 얼마간의 석유매장량, 약 400만톤의 갈탄 그리고 우라늄 등 상당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전력사업 개황

중앙 아프리카 에너지공사(ENERCA)는 CAR의 발전 및 배전을 담당하는 국유 전력사업체이다. 1996년 현재 총 발전 설비 용량은 4만 600kW로서 전력 시스템은 수력발전과 디젤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략적으로 수력 60%, 디젤 40%의 비율이다. 1996년의 총생산 전력량은 1억 400만kWh로서 80%가 수

력발전소에서 발전한 것이다. 판매전력량은 7100만kWh였으며, ENERCA의 전기사용 고객은 1만 1500명으로, 대부분이 방기 시내 또는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 첨두부하는 1만 8000kW이다. 인구의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전기사용이 불가능하다.

CAR의 주 발전소는 방기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강변에 있으며, 다섯 기의 1800kW 프랜시스 터빈으로 이루어진 보알라-1과 두 기의 프랜시스 기기로 구성된 보알라-2로 구성되어 있다. 제2 발전소는 터빈은 리토스트로즈 그리고 발전기는 콘카르로부터 공급되어 유고슬라비아의 업체인 에너고프로젝트에 의해서 1976년에 준공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110kV 송전선로가 포함되어 있다. EDF 인터내셔널은 이들 수력 발전소의 복구와 성능개선 작업을 위하

여 ENERCA를 지원하였다. ENERCA는 또한 방기에 다섯 기의 오래된 발전기 세트로 구성된 1만 4천kW의 디젤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4. 장래의 전망

CAR의 전력부문 개발의 현재 계획은 두 가지의 주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 수력발전에 의한 농어촌 전화 사업의 확대시행과 현재 약 30%에 이르는 송배전 시스템의 전력손실의 감소가 그것이다. ENERCA의 민영화도 현재 추진중에 있다. 비록 규모가 작고 메마르고 활력이 없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최소한도 전력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처음부터 차례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udi 'Country of the Week', 1999.3.9)



유가 상승과 석유 생산회사들의 대응

1. 유가하락은 과거의 악몽일 뿐

약 6개월 전만 해도 원유가격은 배럴 당 11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사우디아라비아의 한때의 나쁜 꿈에 불과한 것

으로 여겨진다. 1999년 2월 이후 원유 가격은 60% 이상 상승하였다. 또 4월 28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간에 생산감축을 위한 3월의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서명은 웨스트 텍사스 인터메디에이트의 가격을 18.43달러로 밀어 올렸다.

과거에는 그와 같은 원유 가격상승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개발과 생산의 촉발을 일으켰고 바로 이어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수반했었다. 이미 더 많은 유정(油井)을 뚫으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투자자들은 슈림버거와 같은 유전개발회사들의 주식 값을 경합하여 올리고



있으며, 슈림버거의 경우 3월 1일 이후 주가가 30%나 상승하였다.

2. 유정 뚫기를 꺼리는 석유 회사들

그러나 이번에는 석유회사들이 서로 자제(自制)하고 있다. 그들은 원유가격이 밑바닥을 친 시점인 1998년 말에 1999년 투자계획을 과감하게 삭감시켰다. 그리고 최근의 유가회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살로몬 스미스 바니의 경우 전세계 175개의 석유회사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소비한 비용이 1999년에 25% 이상 삭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가 감소된 1986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은 과거 40년간에 걸쳐 투자액의 축소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라고 살로몬의 석유분석가인 제오 프 B. 키에볼츠 씨는 말하고 있다.

왜 유정을 뚫기를 꺼려하는가? 첫째로 지난번에는 석유회사들이 유가상승에 너무 빨리 반응했다가 따끔한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유가가 단지 두달째 오르고 있는데 불과하다”라고 BP(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아모코의 대변인인 데이비드 니콜러스씨는 말한다. 이 회사는 1998년에 개발과 생산에 책정한 예산이 63억 달러였는데 비하여 1999년에는 36억 달러에 그쳤다.

3. 1998년의 유가하락과 자금 고갈

1998년의 유가 급락은 석유회사들의

대차대조표에도 타격을 주었으며, 어떤 회사들은 그 타격으로 새로운 유정과 생산 플랫폼을 마련할 자금조차도 남겨놓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와 같은 일은 관례적으로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게 되는 보다 규모가 작은 생산업체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작년의 초대형 회사를 제외한 에너지주식에서의 대학살 이후로 “자본시장은 독립사업자들에게는 완전히 폐쇄되어버렸다”라고 미국 코네티컷주(洲) 스탬퍼드에 있는 존 S. 헤롤드 사의 석유분석가인 로버드 E. 질론씨는 말한다.

한편 규모가 큰 석유회사들은 이러한 뜻밖의 황재로 그들의 악화일로에 있던 재무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가격급등이 대부분 1분기의 말에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석유회사들의 수입은 분석가들의 비관적인 이익예상치를 거뜰히 초과했다. 이와 동시에 분석가들은 많은 대형 회사들이 아직 유정을 뚫기보다는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회사에는 텍사코, 셰브론 및 코노코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미국의 석유비축량 감소

유가의 상승은 또한 OPEC 회원국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봄의 유가급등은 3월의 OPEC와 러시아, 멕시코 등의 기타 석유생산국간의 생산감축에 대한 합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OPEC 협

정이다”라고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알라론 트레이딩의 에너지 분석가인 필립 J. 플린씨는 말한다. 그는 또 “석유생산자들은 낮은 석유가격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제 그들은 서로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유가는 최근의 세계경제 성장의 상승추세와 베네수엘라의 파이프라인 폭발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제트 연료유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슬라비아 폭격 등과 같은 사태들도 별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석유 생산국들에게는 생산량을 속이고 할당량을 초과시키고 싶은 유혹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생산량을 속인 나라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할당량을 위반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도 실제로 OPEC가 설정한 목표량보다 적게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석유협회(API)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석유수입이 17% 감소된 후 4월 넷째주에 석유 비축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5. 몇 백만 년을 지하에 묻혀 있는 원유

아직도 새로운 유정을 뚫겠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조업중인 리그(유정 굴착장치)의 수는 1998년 12월보다 25% 감소하여 4월 넷째주에는 488개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베이커 휴스 사가 1944년에 기록을 보존하기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의 리그의 숫자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급격한 감소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물론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유정 뚫기는 다시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대형 석유회사들이 서로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일 당신이 유정을 뚫으면 새 유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년 후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모빌 사의 대변인인 빌커밍스씨는 강조하고 있다. 원유는 지

하에 몇 백만 년간 묻혀 있었다. 그런데 몇 년 더 지하에 그대로 남아있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자료: 『Business Week』1999.5.10)



인도 — 다브홀 발전소 준공과 전기요금에 대한 갈등

1. 다브홀 프로젝트의 연혁

- 1992년 — 엔론이 다브홀에 인도의 첫 외국인 소유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하리슈트라 주(州)정부와의 협상 개시
- 1994년 —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봉착
- 1995년 — 8월에 주정부는 엔론의 발전소 건설계약을 취소
- 1996년 —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와의 재협상 후 엔론의 계약이 4월에 다시 발효
- 1999년 — 다브홀 발전소의 1단계 프로젝트가 여름에 준공될 예정

2. 다브홀 발전소 준공 임박

봄베이 남쪽 160km 떨어진 곳에서 머지않아 거대한 발전기가 정식으로 발전을 개시하게 되면 미국 휴스턴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엔론사로서는 감개 무량한 일임에 틀림없다. 완성하는데 7년이

나 걸린 15억 달러의 다브홀 발전소는 인도 전력계통에서 일찍이 이룩하지 못하였던 가장 큰 민간투자 발전소이며, 또한 역경을 극복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다. 다브홀 발전소는 가격을 결정하는데만도 몇 년이 소요되었다. 인도는 엔론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한 후에야 원 상태로 겨우 회복시킴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근근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엔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부패로부터 가격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던져진 것들 모두를 해결하였다”라고 엔론 인터내셔널의 조세프 W. 슈톤 회장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장미 향기를 맡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마하리슈트라 주 전력국(MSEB)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엔론의 20년간의 거래에서 논쟁의 뚜렷한 흔적이 아직도 가시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 산업의 중핵(中

核)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사업체인 MSEB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요금의 하나가 될 다브홀 발전소의 전력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태에 맞물리게 된 것이다. 비평가들은 MSEB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현지 산업은 비싼 전기요금으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엔론은 이 거래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정하다면서 이 거래의 정당성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례는 다브홀과 같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이것을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유지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3. 산업성장의 둔화

논쟁의 대부분은 엔론이 MSEB에게 전기요금을 얼마나 청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MSEB는 다브홀



프로젝트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 kWh당 약 7센트이다. MSEB의 전(前) 회장이며 엔론 거래의 비평가인 마드하브 고드보르씨는 MSEB의 평균 전기요금은 이 가격보다 몇 센트 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도 심계원의 최근의 한 보고서에서도 다브홀의 전력가격은 역시 너무 고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분석가들은 엔론이 이 발전소에서 30%의 투자수익률(ROI)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유사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인도가 보장해주는 ROI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회의당 출신의 정치인들은 마하라슈트라 주 공무원들이 엔론과 재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심하게 비난하고 있다. 협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주(洲)의 경제가 연간 12%의 성장률을 보였으므로 MSEB는 전력수요의 급증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경제는 성장이 둔화되었다. 1999년 마하라슈트라 주의 산업은 겨우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비싼 전기요금과 달리 지불

다브홀의 비평가들은 이제 마하라슈트라라는 잉여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타타(Tata) 전력회사들과 같은 현지 전력생산자들은 엔론보다 훨씬 낮은 전기요금으로도 전력소비 고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화를 돋구는 주요사항은 그 계약서에

의하면 엔론은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달러로 지불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도 루피화의 통화가치 하락은 MSEB로서는 그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엔론측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MSEB가 이미 몇몇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엔론에게보다 더 많은 전력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엔론은 전력생산설비의 과잉 때문에 전력요금이 비싸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엔론이 받는 전기요금이 1년 또는 2년 안에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이유는 첫번째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나프타보다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다브홀의 2단계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슈토 씨는 "이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5. 다른 주로 옮겨가는 산업체들

엔론에 대한 비판은 바로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MSEB의 전(前) 간부였던 고드보르 씨는 최근에 발행된 논문에서 MSEB가 전기사용 고객과 농민들에 대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계약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의 결과로 전력사업체는 치명적인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MSEB 간부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측을 부인하고 있으며, 주(洲)에너지장관인 고비나스 문

데 씨는 계약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다브홀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반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가정요금보다 60%나 더 지불하여야 하는 현지 공장들은 조만간 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여 실제로 제조업체의 한 그룹은 봄베이 고등법원에 MSEB의 전기요금을 동결시켜 달라고 청원해 놓은 상태이다. 주(洲)입법의의원 사라드 파와르 씨는 높은 세금과 다른 부담으로 "산업체들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른 주(洲)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이와 같은 탈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6. 의욕적인 투자계획

그러나 엔론의 계획은 아직도 야망적이다. 엔론은 향후 5년간에 걸쳐 인도의 에너지부문에 1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많은 주(洲) 정부들이 이제 전력 프로젝트를 경쟁입찰에 부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엔론의 성공은 다브홀에서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고 순탄하게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엔론은 스타와 같이 인도에 등장하여 전력의 상업화에 대한 첫 레슨을 인도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제 엔론자신이 새로운 레슨을 인도로부터 배울 필요성이 대두한 것으로 보인다. [X]

(자료 : 『Business Week』 1999.5.17)